

# 지구의 정원·습지의 숨결... 올 봄 순천만 거닐어볼까

“올 봄 순천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정원을 거닐며 삶의 여유를 만끽해 보자.”

중세 유럽의 고풍스러운 정원과 현존 최고의 정원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월 20일~10월 20일)의 개막이 70여 일을 다가왔다. 개막을 앞두고 현재 박람회장 일대에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현재 박람회장에서는 참가국별로 전통양식의 정원을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건물 등 대부분 공사는 마무리됐고, 꽃이나 나무를 심고 정원을 연출하는 작업만 남은 상태. 전체 박람회장 공정률은 92%.

이번 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을 주제로 세계적 생태습지인 순천만과 풍덕동 일원 박람회장 등 111만2000㎡(33만6300여 평) 부지에서 열린다.

정원박람회는 2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세계적인 환경축제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주관으로 지난 15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개최됐다. 순천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AIPH가 공인하는 A1·B1·A2·B2 등 4개 등급 행사 중 A1급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박람회장은 56만4000㎡의 주 박람회장과 23만3000㎡의 수목원, 10만5000㎡의 국제습지센터 등으로 꾸며진다.

정원박람회는 미래의 다양한 정원문화 기술을 전시 공유하는 장으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50년 전부터 개최해 온 박람회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다.

개최이후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기존의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4월20일~10월20일

국제습지센터 완공 공정률 92% 개막준비 순조  
시간 지날수록 가치 높아지는 ‘미래형 박람회’  
70개 정원·호수바람언덕 등 오감만족 축제로

산업박람회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수목이 울창해지고 그 가치가 높아지는 미래형 박람회이다.

가장 큰 볼거리인 순천만 호수정원은 토목공사를 마치고 잔디 식재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근의 국제습지센터는 잔디언덕으로 조성되는 지상 2층 높이의 외관이 완전히 드러났다.

네덜란드, 프랑스, 중국, 영국 등 세계 10개국이 참여한 세계정원도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실외정원과 실내정원 등 공사가 끝나면 모두 70여 개의 정원이 순천만 일대에 생겨나게 된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 펜스가 설계한 순천만 호수·바람언덕은 순천 도심에 둘러싼 주위의 산과 도심에 자리잡은 봉화산을 표현했고, 호수에 설치된 데크는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동천을 상징하고 있다.

영국켈시플라워소에서 두 번 금상을 수상한 황지해 정원디자이너 환상의 정원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박람회장 서쪽에 마련된 수목원에는 한국정원과 편백휴양숲 등이 조성돼 피톤치드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세계최초의 다리미술관인 꿈의 다리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습지센터와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다리에 컨테이너 30개를 놓아 미술관으로 꾸며지며 상하이 엑스포 때 한국관을 디자인한 강익중 작가가 외부 디자인을 맡았으며 내부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회화 작품 14만점이 전시된다.

또 동천공원에서 열리는 상설 주제공연을 비롯해 계절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 공연, 체험행사도 곁들여진다.

박람회 교통 대책도 마련됐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연향호반아파트~체육관 사거리 개설공사(1700m), 오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391m), 남송동길 확·포장공사(528m)를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주차장은 총 1만3982대가 주차가 가능토록 조성 중이다. 이중 상설 주차장은 3098대 주차가 가능하며 수목원 및 습지센터에 254대, 주박람회장 340대, 순천만생태공원 1294대를 세울 수 있다. 이외에도 임시주차장(1만884대) 예비 주차장(2160대)도 확보했다.



세계인의 '정원 축제'인 순천정원박람회 개막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습지 형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제습지센터가 지난달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제수준에 걸맞은 숙박시설 제공을 목표로 고급숙박시설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686실을 확보했다. 또 관광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했다. 지금까지 306개소의 지정업소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했으며 이

외의 일반식품점업소 7000여개소의 철저한 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관리 특별 대책팀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박람회 기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1일 35회, 총

6495회의 공연, 체험, 전시 등의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매주 주말 동천공원에서 열리는 상설주제공연을 비롯해 계절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 공연,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정원박람회의 또 다른 즐거움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음식이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오감(五感)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 중이다.

관객 입장에서 주 박람회장과 박람회장 밖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잡자리, 살거리, 체험거리, 볼거리 등 5감 만족을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134개소의 남도의 다양한 먹거리, 162개소의 잡자리, 30개소의 면세점 등 소풍거리, 13개소의 체험거리를 비롯한 관광지, 경관, 축제, 공연을 통한 볼

리 3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박람회 기간 도심 곳곳에서 681회의 문화공연을 준비 중이다.

관객의 입맛을 자극할 먹을거리를 위한 모범음식점 134개소를 관리하고 연향동 원스 푸드(Once Food) 거리, 우장 및 아랫장 국밥, 중앙동 곱창거리 등 향토 음식과 친환경 자연밥상을 운영한다.

관객의 편안한 잡자리를 위해 정원박람회 지정 숙박업소 162개소에 대해 1인 담당제를 시행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면 청소년수련소 및 휴양림 등의 캠프장, 순천만 에코촌,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에 가이드북, 관광안내도 등을 나눠준다.

## 친환경 자연밥상·다양한 문화공연·향토 특산물·관광지...

## 박람회 모두 둘러보셨다면, 음식 맛보고 체험도 즐기세요

또 관광객의 지역상품 소핑을 위한 30개소의 면세점, 대형마트, 특산물 매장과 1읍면동 1특품의 지역 특산물과 화해 포장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홈페이지, 조직위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관광안내소를 통해 판매를 홍보한다. 체험거리를 위해 순천만, 낙안읍성,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 송광사, 고인돌 공원 등

의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 관광객 지역 특색이 그대로 살려진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 조례호수공원, 기독교역사박물관, 상사호, 용산전망대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정원박람회 주변 관광지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훈훈한 설명절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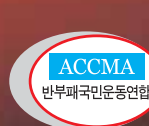
# 계사년,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2009-2010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  
(평주) 지구 제37대 총재역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오물 한방울 섞이면 못 마시듯”

모든 시민이 함께하시어  
2세들이 건강한 사회환경속에서 살아 갈 수 있는  
깨끗한 사회운동에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인가)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상임의장 **박길무**

공동대표 | 김성덕, 김재두, 김시권, 이길행  
집행부 | 연합본부장 전영규 | 사무처장 문상준 | 재무처장 김현수 | 대변인 지영봉  
조직위원장 이용준 | 홍보위원장 신정욱 | 조직부장 김인주 | 홍보부장 김병중  
사무실 |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236번지(2층) TEL. 062)228-4747 FAX. 228-4748  
부정·부패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 062-228-4747(대)  
반부패 사회활동에 동참하실분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